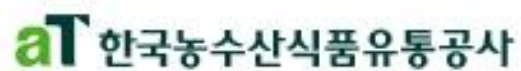


캐나다 신선 배 수출확대 방안

2018. 09.



[목 차]

I. 시장현황	3
1. 생산현황	3
2. 수입현황	7
II. 소비현황	10
1. 캐나다 소비규모	10
2. 소비동향	11
III. 관련정책 및 인증	14
1. 검역요건	14
2. 수입규제	16
IV. 한국산 배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 방안	18
1. 북미지역 신선 배 시장 비교	18
2. 진출방안 제언	25

I.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캐나다의 배 생산량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소폭 상승함

- 2017년 캐나다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9,676톤을 기록함
 - 캐나다의 배 재배면적은 2013년 922ha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2013년 대비 9.4% 감소한 835ha로 집계
- 부란병(fire blight) 발생이 캐나다 배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부란병은 주로 사과와 배 나뭇가지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 포자가 침투하여 감염되는 병으로, 병균이 침입하면 가지가 약해지고 나무가 전체적으로 마르고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과실이 자라지 않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됨
- 더불어 배 생산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캐나다 농가는 블루베리, 사과 등 수익성이 높은 과일 및 채소 재배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은 더욱 하락함
 - 캐나다에서 배 생산 시 요구되는 재배 및 보관 조건이 타 작물 대비 까다로워 상품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수요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

<표 I -1> 캐나다 배 생산량 및 재배면적(2007~2016년)

(단위: 톤, ha)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량	10,293	9,154	8,954	8,285	9,676
재배면적	922	912	902	894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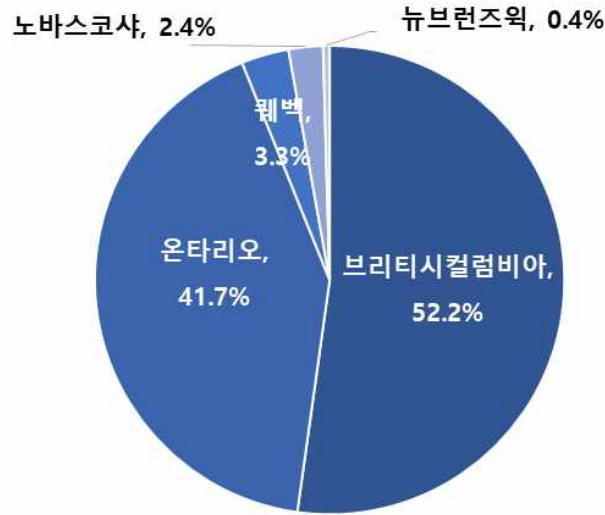
* 출처: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배의 주요 재배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온타리오(Ontario)주, 퀘벡(Quebec)주,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등임

- 캐나다산 배 중 약 93.9%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재배됨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 내 배의 수확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전체 배 수확량의 52.2%(5,067톤)를 차지함
 - 동년 수확량 2위 지역인 온타리오주의 배 수확량은 전체의 41.7%인 4,048톤을 기록함
 - 온타리오주는 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재배면적은 465ha(55.5%)로 집계

- 캐나다산 배는 주로 8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됨

〈표 1-2〉 캐나다 배 산지별 수확량 비중(2017년)
(단위: %)



* 출처: 캐나다 통계청

〈표 1-3〉 캐나다 배 산지별 재배면적, 수확량(2017년)

(단위: ha, 톤, %)

순위	지역	재배면적	비중	수확량	비중
-	합계	838	100.0	9,706	100.0
1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249	29.7	5,067	52.2
2	온타리오(Ontario)주	465	55.5	4,048	41.7
3	퀘벡(Quebec)주	72	8.6	318	3.3
4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45	5.4	230	2.4
5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	7	0.8	43	0.4

* 주 1: 비중은 전체 수확량 대비 지역별 수확량 비중

* 주 2: 퀘벡주는 2016년도(최신 통계) 자료

* 출처: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에서는 서양 배(European pear)와 동양 배(Asian pear) 모두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새로 개발된 품종으로 콜드스냅 배(Cold Snap)가 있음

- 서양 배는 일반적으로 호리병 모양이며 매끈한 껍질과 부드러운 과육이 특징인 반면 동양 배는 구형이며 껍질의 촉감이 비교적 거칠고 과육이 아삭아삭함
 - 서양 배는 껍질이 녹색일 때 미리 수확하여 상온에서 숙성시키지만 동양 배는 과실이 완전히 익은 다음 수확함
- 캐나다에서 주로 재배되는 서양 배 품종으로는 바틀릿 배(Bartlett), 보스크 배(Bosc), 안주 배(Anjou pear)가 있음
 - 특히 바틀릿 배는 북미 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품종으로 캐나다 온

타리오주 남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남부 등에서 주로 생산됨

- 서양 배인 콜드스냅 배는 2016년 온타리오주의 신선과일 협동조합인 바인랜드 그로워스(Vineland Growers)와 캐나다 농업농식품부(AAF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의 협업으로 개발됨
 - 다른 품종과 달리 비교적 보관기간이 길어 캐나다산 배의 제철인 가을이 지난 뒤 이듬해 초봄까지 캐나다 전역에 유통되고 있음
 - 바인랜드 그로워스와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는 콜드스냅 배 외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배 품종(HW623, HW624)을 개발 중이며 2021년에 2개의 신품종을 출시할 예정임
 - HW623 품종은 보스크, 바틀릿, 안주 배 품종에 비해 향이 더 짙고 과즙이 많으며 HW624은 중대형 크기로 신맛이 가미된 품종으로 알려짐
 - 해당 협회와 기관은 배 품종 개량을 통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캐나다 내 배 생산량을 회복하고자 함








<그림 1-1> 캐나다에서 개발 중인 신규 배 품종



* 출처: 바인랜드 연구혁신센터(Vineland Research and Innovations Centre)

- 캐나다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동양 배는 신고 배(Sinko asian pear), 신세이키 배(Shinseiki asian pear, 켄코 배(Kenko asian pear) 등이 있음
 - 동양 배는 오리엔탈 배(Oriental Pear), 나시 배(Nashi pear) 또는 사과 배(Apple pears)라고 불리기도 함
 - 동양 배는 껍질이 두껍지 않아 과일 표면에 상처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재배 및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표 I -4〉 캐나다 주요 재배 품종

구분	품종	사진	내용
서양 배	바틀릿 배 (Bartle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에서 열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변함 • 다양한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함 • 캐나다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온타리오(Ontario)주에서 주로 생산됨 • 상업 통조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종 • 주로 9월에서 11월 사이 유통되며 보관기간은 1~2개월 정도
	보스크 배 (Bo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의 목이 비교적 긴 품종으로 껍질의 색은 갈색 또는 녹색임 • 과육은 흰색으로 과즙이 많음 • 비교적 따뜻한 서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됨 • 10월에서 12월 사이 많이 유통되며 보관기간은 최대 4개월임
	안주 배 (Anjou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은 녹색으로 바틀릿과 달리 익어도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음 • 바틀릿 품종보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10월에서 5월 사이 유통됨
	콜드스냅 배 (Cold S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서 독점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 질병에 대한 내성이 높고 다른 품종보다 저장 기간이 길다는 장점 보유 • 바틀릿 배와 마찬가지로 9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된 뒤 냉장 보관했다가 2월에서 3월까지 유통됨 • 2016년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수확된 품종으로 질병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농가에서 재배를 늘리는 추세
동양 배	신코 배 (Shinko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은 황갈색이며 질감이 거침 • 크기는 중형에서 대형 사이로 식감이 아삭아삭함 • 9월 경 수확
	신세이키 배 (Shinseiki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은 녹색 또는 갈색 • 중형 품종으로 식감은 타 품종에 비해 부드러우며 사과처럼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 • 캐나다에서 재배되는 동양 배 중 가장 빨리 수확되는 품종으로 7월 이후에 수확
	켄코 배 (Kenko Asian P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은 황금빛을 띠는 갈색이며 질병에 강한 품종으로 재배하기 쉬움 • 9월에서 10월 사이 수확됨

* 출처: 온타리오주 농림부(www.omafra.gov.on.ca), 캐나다 JC Bakker and Sons Ltd. 종묘장 홈페이지(www.jcbakker.com), 캐나다 Whiffletree 농장 홈페이지(www.whiffletreefarmandnursery.ca), 캐나다 Springtree 농장 홈페이지(www.springtreefarm.ca), 캐나다 Green Barn 농장 홈페이지(www.jardinjasmin.com)

2. 수입현황

□ 캐나다 배 수입액 및 수입량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7년 캐나다 배 수입액은 8,164만 달러(한화 약 873억 1,400만 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7.3%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6만 2,833톤으로 전년대비 약 5.6% 하락함

〈표 1-5〉 캐나다 배 최근 5개년 수입규모(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95,878	99,420	94,318	88,069	81,640
수입량	70,732	73,873	71,333	66,565	62,833
단가	1.36	1.35	1.32	1.32	1.30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Global Trade Atlas

□ 캐나다의 주요 배 수입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며, 한국은 7번째 국가로 비교적 비중이 낮은 편임

-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주요 3개국이 캐나다 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임
 - 2017년 미국산 배는 전년대비 약 7.7% 감소한 4,454만 달러(한화 약 476억 3,550만 원)를 기록하였음
 - 2위 수입국은 아르헨티나로, 2017년 약 1,255만 달러(한화 약 134억 2,223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 수입의 15.4%를 차지
 - 동년 중국은 캐나다의 배 수입 3위 국가로 1,166만 달러(한화 약 126억 1,905만 원)를 수입하여 14.3%를 차지함
- 스페인산 배 수입은 2017년, 전년대비 128% 증가함
 - 이는 캐나다와 EU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체결에 따라 모든 과일과 채소의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배 수입국으로 수출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한국산 배 수입은 전년대비 약 11.1% 증가한 112만 달러(한화 약 11억 9,780만 원)로 전체의 1.4%를 차지

〈표 1 -6〉 캐나다 배 주요 수입국가(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71,333	94,318	66,565	88,069	62,833	81,640	-5.6	-7.3	-	-
1 미국	38,438	51,754	34,988	48,277	33,625	44,538	-3.9	-7.7	54	55
2 아르헨티나	11,690	14,940	10,233	13,444	9,163	12,554	-10.5	-6.6	14.6	15.4
3 중국	11,477	13,531	11,720	12,390	10,772	11,662	-8.1	-5.9	17.1	14.3
4 남아프리카 공화국	3,853	5,119	4,772	6,163	5,076	6,569	6.4	6.6	8.1	8.1
5 포르투갈	1,475	1,781	1,158	1,632	1,502	1,982	29.7	21.5	2.4	2.4
6 호주	1,314	1,776	1,000	1,438	859	1,189	-14.1	-17.3	1.4	1.5
7 한국	335	1,001	327	1,004	502	1,115	53.3	11.1	0.8	1.4
8 칠레	1,842	2,873	1,500	2,323	651	926	-56.6	-60.1	1.0	1.1
9 이탈리아	575	879	604	981	387	636	-35.9	-35.2	0.6	0.8
10 스페인	24	27	70	100	165	228	135.8	128.0	0.3	0.3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미국과 중국산 배는 주로 가을에서 겨울까지, 아르헨티나산 배는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수입됨

- 미국산 배의 수입액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10월에서 1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월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미국산 배의 수입액은 12월에 623만 달러(한화 약 67억 767만 원)로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산 배는 일반적으로 8월부터 수입이 급증하며 1월까지 높은 수입 추세가 지속되다 2월부터 다시 감소함
 - 2017년 중국산 배는 11월에 가장 많이 수입되어 134만 달러(한화 약 14억 5,022만 원)를 기록함
- 아르헨티나산 배의 경우 3월과 6월 사이 수입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시기에는 극소량 수입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산 배는 캐나다산 배가 수확되지 않는 봄과 여름에 주로 수입됨
 -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어 1월부터 6월에 주로 배를 수확하는 반면 캐나다는 8월에서 10월 사이 배를 수확함
- 2017년 기준, 한국산 배가 가장 많이 수입된 시기는 9월임
 - 9월에 수입이 시작되어 다음해 2월까지 이어지며,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수입되지 않음

〈표 1-7〉 캐나다 주요 수입국 최근 3개년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2017	5,558	3,986	2,916	1,925	1,061	831	2,049	3,603	4,446	5,921	6,006	6,231
	2016	7,605	4,264	2,846	2,522	1,403	683	2,789	3,629	4,658	6,012	6,246	5,619
	2015	7,705	4,663	3,238	1,949	1,293	641	2,604	3,832	4,968	6,385	8,147	6,378
아르헨티나	2017	7	460	3,577	2,928	2,810	2,170	531	59	3	4	3	1
	2016	14	430	3,191	3,952	2,795	2,299	612	124	9	5	2	6
	2015	8	631	4,067	4,506	3,364	1,893	365	65	13	10	3	11
중국	2017	1,215	850	971	1,092	720	182	243	1,189	1,335	1,203	1,342	1,320
	2016	1,039	1,025	818	1,479	751	370	253	1,197	1,291	1,481	1,232	1,454
	2015	1,741	773	1,634	1,585	1,233	417	1	619	666	1,834	1,695	1,346
한국	2017	166	37	-	-	-	-	-	-	275	158	266	214
	2016	114	-	-	-	-	-	-	146	93	290	173	189
	2015	113	36	-	-	-	-	-	-	239	195	176	244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ITC Trade Map

II. 소비현황

1. 캐나다 소비규모

□ 캐나다의 신선 배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의 배 소비량은 증가해왔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임
 - 2013~2014년 8만 1,600톤의 소비량을 기록하였으며, 2016~2017년 7만 1,600톤까지 하락
- 캐나다에서의 배는 99.7%가량이 신선 형태로 소비되며, 가공 소비는 전체의 0.3%로 극소량에 불과함
 - 2016~2017년 기준, 신선소비 형태는 7만 1,400톤을 기록하였으며 가공용 배 소비는 200톤으로 집계됨
-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배는 주스, 와인 등 음료와 통조림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1〉 2009~2017년 캐나다 신선 배 소비 규모 추이

(단위: 천 톤)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신선상태 소비	79.6	75.5	78.1	81.3	81.4	80.7	75.2	71.4
가공 소비	3.4	0.4	0.2	0.2	0.2	0.3	0.4	0.2
합계	83	75.9	78.3	81.5	81.6	81	75.6	71.6

* 주 : 마케팅 연도 -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재배까지를 1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 출처: 미국 농무부

〈그림 II-1〉 배 가공식품 예시



* 출처 : 캐나다 음료 제조기업 Jus Tradition 홈페이지(www.vpj.ca), 캐나다 와인 제조기업(www.justfinewine.ca), 이미지 제공 사이트 Pinterest(www.pinterest.ca)

□ 캐나다의 1인당 연간 신선 배 소비량은 증감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보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의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2.1-2.2kg를 유지해왔으며, 큰 폭의 증감을 보이지 않음

<표 II -2> 캐나다 1인당 연간 배 소비량(2012~2016년)

	(단위: kg)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량	2.2	2.1	2.2	2.1	2.1

* 출처: 캐나다 농림부

2. 소비동향

□ 주요 소비 배 품종은 바틀릿 배, 보스크 배, 안주 배 등으로 서양 배가 주를 이루며 최근 새로 개발된 품종인 콜드스냅 배가 이목을 끌고 있음

- 바틀릿 배는 캐나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으로 신선 과일, 통조림 등의 형태로 소비됨
- 보스크 배, 안주 배는 주로 신선 과일의 형태로 소비됨
 - 보스크 배는 타 품종보다 과즙이 많아 베이킹 등 요리할 때 선호되는 품종임
 - 과거 주요 재배 품종이었던 안주배의 최근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 이는 과일의 크기와 모양을 고르게 유지하며 재배하는 것이 어려워 농가에서의 재배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종인 콜드스냅 배는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을에서 초겨울까지만 유통되는 다른 품종과 달리 콜드스냅 배는 초봄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 콜드스냅 배의 학명은 ‘AC Harovin Sundown’ 이나 해당 품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콜드스냅 배’로 명명함
 - 콜드스냅 배 품종을 개발한 캐나다 농업협동조합 바인랜드 그로워스는 캐나다의 광고대행사 Kitestring에게 해당 품종의 브랜딩을 의뢰함
 - Kitestring은 ‘콜드스냅’ 로고를 제작하고 포장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 콜드스냅 배는 주로 Loblaw, Sobeys, Metro, Wal-Mart, Costco 등 대형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음

〈그림 II-2〉 콜드스냅 배 제품 및 로고







* 출처 : 캐나다 광고대행사 Kitestring(www.kitestring.ca)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품종을 분류하지 않고 소비됨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동양 배는 일반적으로 품종이 명시되기보다 동양 배로 표기되어 판매됨
- IGA와 Walmart 등 캐나다 식료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 내 서양 배는 보스크 배, 바틀릿 배 등 품종 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동양 배는 품종 구분이 되지 않음



〈그림 II-3〉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양배와 동양배

서양배		동양배	
			
Small West Bosc Pear...	Bartlett Pears	Asian Pears	Asian Brown Pears
1 fruit (approx. 180 g)	1 fruit (approx. 200 g)	1 fruit (approx. 270 g)	1 fruit (approx. 250 g)
approx. \$0.79 / unit	approx. \$0.88 / unit	approx. \$1.54 / unit	approx. \$1.43 / unit
\$0.44 / 100 G	\$0.44 / 100 G	\$0.57 / 100 G	\$0.57 / 100 G

* 출처: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www.iga.net)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기침치료나 숙취해소 등에 효과가 있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음
- 2018년 3월 캐나다 온라인 뉴스포털 The star는 동양 배가 기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2015년 10월 캐나다 온라인 뉴스포털 Huffpost 등에서는 동양 배가 숙취해소에 좋다는 기사를 배포함

<그림 II-4> 동양배 관련 기사

The star - 2018년 3월 기사	Huffpost - 2015년 10월 기사
<p>Life · Food & Wine · Recipes THE STAR</p> <h2>This summer, sink your teeth into the crispy, juicy Asian pear</h2> <p>By CYNTHIA DAVID Special to the Star Wed., March 14, 2018</p> <p>f t e ...</p> <p>If you enjoy crunchy, juicy fruit, pick up an Asian pear on your next visit to the produce section. Plump and round as an apple with golden brown or pale yellow-green skin, crisp, a grainy texture and lightly sweet taste, these ancient pears are ready to eat when you buy them and make a refreshing snack straight from the fridge.</p> 	<p>EDITION CA HUFFPOST f t @ p</p> <p>NEWS POLITICS BUSINESS LIVING PARENTS VIDEO BLOGS MORE Q</p> <p>꼭 갖춰야 할 편안함 Crocs® Clog</p> <p>LIVING 08/04/2015 10:33 EDT Updated 08/04/2015 10:59 EDT</p> <h2>Asian Pears Touted For Helping Hangovers, Say Researchers</h2> <p>APP-Relatedness</p>  <p>Anticipate a booze-fueled, night-of-free-flowing-drinking? You might want to hit the grocery store and pick up a few pears to head off a hangover. Because preliminary findings out of Australia's national science agency show that eating a pear — but not just any pear — could keep hangovers at bay the next day.</p> <p>Want to test the theory? According to scientists at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the best varietal is the Korean or Asian pear, which differs from their hourglass cousins by resembling apples in shape.</p> <p>FROG HOLLOW FARM Hand-made Gourmet Foods BUY NOW</p> <p>SPONSORED FEATURE</p>

* 출처: 캐나다 IGA 온라인판매 홈페이지(www.iga.net)

III. 관련정책 및 인증

1. 검역 요건

가. 배 관련 수출요건

□ 캐나다로 배 수출 시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이 필수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관리하며 한국, 중국 등은 각 국의 식물검역 관련 기관에서 수출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된 배만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 재배지를 ‘캐나다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배를 재배해야 함
 - 한국산 배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단지 지정은 재배 작업 및 재배지 검사를 거쳐 승인됨

- 재배지 검사는 크게 △봉지 씌우기 작업 후 검사 △수확 전(연 2회) 검사 △응애¹⁾예찰조사로 나뉨
 - 검사의 관할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며 최종 검사일은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짐
 - 황금배(Golden pears)는 9월 중순, 신고배(Shingo pears)는 10월 하순까지 검사가 실시됨
 - 봉지 씌우기 작업을 거친 배만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 작업 후 재배지 검사를 진행함
 - 또한 수확 전 1년에 두 번씩 병 또는 해충이 없는지를 검사함
 - 응애예찰조사는 6월에서 수확 1주 전까지 월 1회씩 진행해야함
- 재배지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음

1	1.5ha 당 최소 10그루의 나무에서 무작위로 잎을 수집
2	24시간 이내에 병, 해충 검사 실시 ²⁾
3	검사 후 병 또는 해충이 발견된 과수원은 캐나다 수출단지 리스트에서 제외됨

1) 응애는 진드기아강에 속하는 진드기를 제외한 모든 절지동물의 총칭으로 과일의 잎에 붙어 영양분을 뺏는 곤충
2) 모든 잎은 해부 및 복합 현미경으로 검사해야하며 식물분류학자(taxonomist)가 확인해야 함

- 하기에 기재된 병 또는 해충이 발견된 배는 수출이 불가함
 -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 과수균핵병(*Monilinia fructigena*), 벗나무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또는 Hawthorn spider mite),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배명나방(*Numonia pirivorella*), 뭉툭응애(*Tetranychus truncatus*) 등
- * 캐나다 식품검사국(Food Inspection Agency) 한국산 동양배 검역 정보 사이트:
http://inspection.gc.ca/plants/plant-pests-invasive-species/directives/horticulture/d-95-08/eng/1322413085880/1322413275292#a2_7
-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로 수출할 경우에만 규제함
- 한국산 배를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 수확 과실에 대해 한국검역관의 선과장 과실검사가 요구되며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 이 표기된 한국 식물검역증(PC,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첨부해야함
 - 한국 식물검역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적 전 14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함

나. 한국산 배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 2018년 한국산 배의 캐나다 수출 검역요건이 완화됨

-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르면 ‘배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을 경우 해당 과수원의 제품은 캐나다로 수출이 불가’ 했음
 - 이에 따라 과수원 주변에 복숭아속 식물(벗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이 있을 경우 배 농가들은 캐나다로 수출을 포기함
- 2018년 1월 캐나다와 배 검역요건이 완화되어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격리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수출단지 지정 요건이 완화됨
 - 기존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따르면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³⁾에 준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만이 수출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2018년 검역요건 타결에 따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로 지정받지 않아도 수출단지가 직경 40km 이내에 집단화 되고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일 경우 수출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참고(<http://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표 III-1〉 2018 한국산 배 캐나다 수출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용어 변경	- 수출재배단지	- 수출단지	- 타 고시와 용어 통일
절차 간소화	- 신규 수출재배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배 생산 지역의 시장·군수는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캐나다 수출·배 재배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수출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對캐나다·배 수출단지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산물단지 지정 전제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신청절차 간소화(시·도지사 경유 → 시장·군수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 - 신청 장소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로 변경
규제 완화	- 과수원내 또는 그 주위 200m이내에 복숭아속식물을 비롯한 캐나다측 규제대상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해당 문구 삭제	- 캐나다 식물검역당국과 합의한 수출단지 지정 요건 중 ‘그 주위 200m 이내에’ 문구 삭제로 규제 완화
	- 수출재배단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함	- 수출단지는 직경 40km 이내에 집단화 되고, 재배면적은 10ha 이상 되어야 함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이하 농산물단지)’에 따라 ‘농산물단지’로 지정 받지 않아도 수출단지 지정 가능하도록 수출단지 요건 완화

* 출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2. 수입규제

□ 캐나다 배 주요 농약 기준치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은 캐나다보건당국(Health Canada)의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해야 함
- 배 관련 주요 농약 기준치는 하기와 같으며, 다음 주소에서 배 농약별 잔류 허용 기준치를 검색할 수 있음

*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 농약별 기준치 검색 사이트: <http://pr-rp.hc-sc.gc.ca/mrl-irm/index-eng.php>

〈표 III-2〉 캐나다 배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품목명	기준치 (ppm)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DV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DV
도딘(Dodine)	5	에톡시퀸(Ethoxyquin)	3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2	옥사밀(Oxamyl)	DV
말라치온(Malathion)	2	오 폴리페놀(o-phenylphenol)	25
Methoxyfenozide	1.5	카바릴(Carbaryl)	5
Buprofezin	6	캡탄(Captan)	5
비펜스린(Bifenthrin)	0.9	크로펜테진(Clofentezine)	0.5

* 주: DV(Default Value)는 기본값으로 0.1ppm 의미

* 출처: 캐나다 보건당국(Health Canada)

□ 관세율

- 캐나다 배의 HS코드는 0808.30(배)이며, 한국산 배를 캐나다로 수출시 최혜국 (MFN, Most Favoured Nation)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됨

IV. 한국산 배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 방안

1. 북미지역 신선 배 시장 비교

가. 캐나다와 미국 시장 비교 배경

□ 캐나다의 인접국가인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배 수출국으로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임

- 2017년 기준, 對미국 배 수출액은 3,040만 2,000달러(한화 약 329억 1,061만 원)를 달성했으며, 전체의 46%를 차지함
-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전년대비 각각 2.7%, 3.1%씩 증가함

〈표 IV-1〉 한국 배 주요 수출국가(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22,493	57,713	25,607	65,356	27,157	66,159	6.1	1.2	100.0	100.0
1 미국	9,333	26,012	10,359	29,482	10,641	30,402	2.7	3.1	39.2	46.0
2 대만	10,161	24,872	9,914	23,333	9,067	20,166	-8.5	-13.6	33.4	30.5
3 베트남	1,145	2,312	2,383	4,961	4,968	9,609	108.5	93.7	18.3	14.5
4 홍콩	482	1,015	475	992	635	1,249	33.7	25.9	2.3	1.9
5 캐나다	324	921	359	1,067	345	1,002	-3.9	-6.1	1.3	1.5

* 주: 한국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미국에서는 일본산과 중국산 품종을 중심으로 동양 배가 재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산 배의 경우 ‘K-pear’ 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다양한 레시피가 추천될 정도로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산 배의 對캐나다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한국 배 진출 사례를 조사함

나. 수입현황 비교

□ 한국은 미국의 배 수입 2위 국가로, 캐나다에 비해 수입 비중이 높음

- 미국의 주요 배 수입국가 중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미국의 전체 배 수입액 중 한국산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전체 배 수입액 중에서는 0.8%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함
 - 2017년 한국산 배의 수입액은 3,059만 달러(한화 약 331억 4,193만 원)를 기록, 주요 10개 수입국가 중 한국산 수입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배의 수입단가는 캐나다보다 미국이 소폭 높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배 수입단가는 2.90달러/kg(한화 약 3,208원/kg)로 2.22달러/kg(한화 약 2,456원/kg)인 캐나다에 비해 0.68달러(한화 약 752원/kg) 높은 수준
 - 동년 미국의 배 총 수입단가는 1.55달러/kg(한화 약 1,676원/kg)로 캐나다의 배 총 수입단가는 1.30달러/kg(한화 약 1,405원/kg)로 집계됨
- 그 외 미국의 주요 배 수입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이 있음
 - 2017년 아르헨티나산 배는 4,582만 달러(한화 약 495억 3,513만 원)가 수입되어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중국과 칠레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함

〈표 IV-2〉 미국의 국가별 배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89,285	130,975	81,957	116,344	73,075	113,469	-10.8	-2.5	100	100
1 아르헨티나	47,092	60,266	42,266	48,671	35,360	45,818	-16.3	-5.9	48.4	40.4
2 한국	9,626	27,366	10,169	29,665	10,553	30,593	3.8	3.1	14.4	27.0
3 칠레	19,748	23,450	14,962	17,980	13,712	17,993	-8.4	0.1	18.8	15.9
4 중국	10,583	15,596	12,466	16,733	11,605	15,563	-6.9	-7.0	15.9	13.7
5 뉴질랜드	1,081	2,328	1,115	1,821	1,114	2,158	-0.1	18.5	1.5	1.9
6 남아프리카 공화국	968	1,550	577	779	465	678	-19.4	-13.0	0.6	0.6
7 프랑스	74	231	90	169	141	476	56.7	181.7	0.2	0.4
8 일본	41	158	42	170	29	121	-31.0	-28.8	0.04	0.1
9 캐나다	68	26	247	332	51	38	-79.4	-88.6	0.1	0.03
10 베트남	0	0	0	0	0	0	-	-	-	-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미국에서 한국산 배는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수입되고 있음

- 한국산 배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미국으로 수입되나,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수입되는 것이 특징
- 8월에 수입이 시작되어 9월에서 1월까지의 수입규모가 가장 높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수입액이 가장 높은 11월의 수입액은 2017년 858만 달러(한화 약 92억 9,577만 원)로 2017년 총 수입액의 28.1%로 집계됨

<표 IV-3> 미국의 아르헨티나 및 한국산 배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르헨티나	2017	-	9,643	13,681	15,096	9,691	4,254	232	97	68	-	-	-
	2016	-	7,267	19,203	16,302	9,942	3,037	394	64	-	-	-	-
	2015	-	6,244	18,910	26,514	13,111	4,246	598	28	-	-	-	-
한국	2017	3,429	1,492	1,310	498	412	353	-	1,897	3,466	4,736	8,577	5,991
	2016	2,890	1,453	1,065	161	158	39	-	2,173	2,659	7,252	7,783	5,530
	2015	3,497	1,947	987	612	313	126	-	26	3,659	4,621	7,391	5,781

* 주: 캐나다의 HScode 0808.30(배) 기준

* 출처: ITC Trade Map

다. 소비현황 비교

□ 미국의 전체 배 소비량은 캐나다에 비해 높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배 소비량은 2011~2012년 72만 8,0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세를 보이며 2016~2017년에는 61만 5,000톤으로 집계됨
- 2016~2017년 배 소비량 중 약 34%에 달하는 20만 9,000톤의 배가 가공용으로 소비됨
- 2016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연간 신선 배 소비량은 약 1.3kg으로 집계되어 캐나다(2.1kg)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표 IV-4> 2009~2017년 미국 신선 배 소비 규모 추이

(단위: 천 톤)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신선상태 소비	446	410	456	395	409	414	390	406
가공 소비	319	256	292	272	265	255	262	209
합계	765	666	748	667	674	669	652	615

* 주: 마케팅 연도 -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재배까지를 1년으로 산정하는 방식

* 출처: 미국 농무부

〈표 IV-5〉 미국 1인당 연간 배 소비량(2012~2016년)

	(단위: kg)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비량	1.3	1.3	1.3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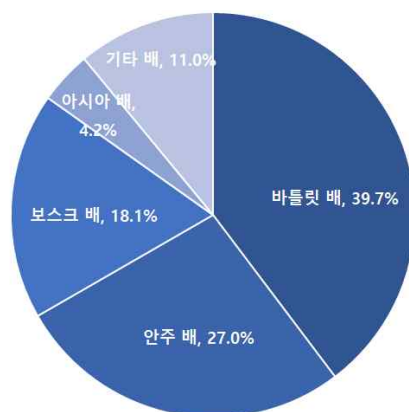
* 출처: Statista

□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배 소비품종은 동일하지만 미국에서 동양 배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소비되는 배 품종으로는 바틀릿 배, 안주 배, 보스크 배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소비가 가장 높은 배 품종은 바틀릿 배인 것으로 조사됨
 - 전문 시장조사기업 스테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바틀릿 배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배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안주 배 27%, 보스크 배 18%, 동양 배 4% 순임
- 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선 상태로도 소비되지만, 조리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틀릿 배는 주로 스낵용 및 통조림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주 배는 샐러드, 베이킹, 파이 등으로 보스크 배는 굽거나 졸인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

〈표 IV-7〉 2017년 미국 품종별 배 소비 비중

(단위: %)



* 출처 : Statista

- 미국에서는 동양 배 재배가 직접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양 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오리건(Oregon)주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일본산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량의 중국 품종이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한국산 배는 서양 배와는 달리 조리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베이킹 용으로 추천되지 않으며 주로 신선한 상태에서 샐러드 혹은 스낵 등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요리 레시피, 방법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스프루스 잇(Spruce eat)에서는 한국산 배를 ‘Bae’ 로 소개하며 맛, 용도, 보관 방법 등을 소개함
- 여기서도 한국산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신선 상태에서 디저트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라. 동양 배 마케팅현황 비교

□ 캐나다에서는 동양 배의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는 ‘K-pear’ 라는 브랜드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활약 중

- ‘K-pear’ 는 2012년 한국배연합회가 한국산 배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한국배 브랜드
- 당시 미국 내에서 저렴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실정이었음
-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으로 배를 수출할 경우 박스뿐만 아니라 낱개 제품에도 ‘K-pear’ 마크를 부착하기 시작함
- 또한 한국배연합회는 미국 등 글로벌 소비자의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위생과 품질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
- 한국의 배 수출 농가들은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lobal GAP)⁴⁾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IV-1〉 K-pear 마크 및 미국 판매 사진



* 출처: 검색엔진(www.yahoo.com), 미국 과일 전문 도매업체(www.specialtyproduce.com)

4)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국제적 제도

마. 수입규제 비교

□ 미국 배 수입 검역 요건 및 잔류 농약 허용기준은 캐나다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향후 농약사용 기준치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

- 미국 배 시장의 경우, 캐나다에 비해 수입 규제와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한국산 배 수출에 큰 문제를 겪어오지 않음
 - 미국으로 과일 및 채소류를 수입할 경우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하며 지정된 반입항을 통해 수입되어야 함
 - 또한 사업용과 비상업용 모두 미국 동식물건강검사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단 건조 또는 가공품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 한국산 배의 경우 한국 식물검역증과 현지 검역만 받으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 미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캐나다에 비해 기준치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하기 사이트에서 주요 농약별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미국 노스웨스트 원예위원회 배 잔류 농약 허용치 고시(<http://nwhort.org/export-manual/comparisonmrls/pear-mrls/>)

〈표 IV-8〉 미국 배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품목명	기준치 (ppm)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05	사이플루쓰린(Cyfluthrin)	0.5
도딘(Dodine)	5	에톡시퀸(Ethoxyquin)	3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2	옥사밀(Oxamyl)	2
말라치온(Malathion)	8	오 폴리페놀(o-phenylphenol)	25
Methoxyfenozide	2	카바릴(Carbaryl)	12
Buprofezin	6	캡탄(Captan)	25
비펜스린(Bifenthrin)	0.5	크로펜테진(Clofentezine)	0.5

* 출처: 미국 노스웨스트 원예위원회(<http://nwhort.org>)

-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이 EPA(미국 환경보호국)를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의 등록을 취소하고 잔류허용량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짐⁵⁾
 - EPA는 지난 2000년 사과와 포도, 토마토 농작물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배 재배 시의 농약 기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EPA는 60일 내로 클로리피리포스의 잔류허용량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따라서 EPA의 향후 조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5) 농민신문, 美 “글리포세이트=발암 물질” 판결(<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296744/view>), 2018-08-27

□ 관세율

- 미국 배의 HS코드는 0808.30(배)이며,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 시 기본세율은 0%로 면제됨

※ 캐나다와 미국 배 시장비교 요약표

기준	캐나다	미국
수입현황 (주요 수입국 및 수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부터 배 수입규모 하락 - 주요 수입 3개 국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한국 7위) - 주요 수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1월 · 아르헨티나: 3월~6월 · 중국: 6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높은 수입량을 유지 · 한국: 9월 ~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배 수입규모 하락 - 주요 수입 3개 국가: 아르헨티나, 한국, 칠레 - 주요 수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2월~5월 · 한국: 7월을 제외한 연중 수입
소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 2016~2017: 7만 1,600톤(전년 대비 5% 하락) ·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2.1~2.2kg 유지 - 주요 소비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틀릿 배, 보스크 배, 안주 배 · 신규품종 콜드스냅 배의 등장 - 동양 배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가 낮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별 구분 및 소비는 없음 · ‘Asian pear’ 로 통칭해서 판매 · 최근 기침 치료, 숙취 해소 등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감추세 반복 · 2016~2017: 61만 5,000톤(전년 대비 5% 하락) · 가공용 배 소비가 전체의 30% 이상 차지 · 1인당 연간 배 소비량은 1.2~1.3kg 사이 - 주요 소비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틀릿 배(40%), 안주 배(27%), 보스크 배(18%), 동양 배(4%) - 동양 배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자체 생산 중이며 질병예방 및 건강에 좋다는 평판
동양 배 마케팅 현황 (한국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점이 조사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ear’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확대 · ‘K-pear’ 마크 부착으로 둔갑판매 방지 · Global G.A.P 인증 취득으로 위생 및 안전성 보장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수출단지’ 로 지정 필수 - 재배 작업 및 재배지 검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봉지, 배나무, 해충 등 검사 - 검역요건 개정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경유’ 에서 ‘시장·군수 경유’ 로 변경 · 규제대상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격리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잔재물이 없어야함 · 도착지 검사, 소독처리, 상업용 화물로 수입 등의 관리방안 준수 필요 · 한국산 배의 경우 식물검역증 필요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MFN, Most Favoured Nation) 특별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0%로 면제

2. 한국산 신선 배 캐나다 진출방안 제언

□ ‘한국산 배’ 품종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

- 캐나다에서 동양 배는 개별 품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되고 있음
 - 한국산 신선 배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처럼 ‘동양 배’가 아닌 ‘한국산 배’의 이미지 브랜딩이 필요함
- 한국산 배는 수분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낮다는 점을 내세워 신선소비는 물론 웰빙과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현지에서 동양 배는 숙취해소와 기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건강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 한국산 신선 배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산 배의 위생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수반하여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운송 시의 품질 손상 우려 등 제한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촉구됨

- 신선 배는 비교적 과실의 경도가 높아 해상 냉장운송이 가능하나 현지에서 재배되거나 인근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편임
 - 동양 배는 껍질이 얇아 재배 및 보관이 어려우며, 유통 과정에서 과실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송 시의 흔들림과 충격에도 과육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포장재 선정 및 포장 방법이 필요함

□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섭취방법 홍보 및 레시피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북미산 배에 비해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산 배는 ‘Asian Pear’라는 새로운 과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현지인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추세
 - 최근 다양한 현지 매체에서는 배를 활용한 색다를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식문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V-9> 캐나다 현지 매체에 게재된 배 활용 레시피



코코넛 슈가 시나몬을 올린 구운 배 디저트



배-카다멈 케이크



백포도주를 곁들인 절인 배



동양 배 음료 - 레모네이드, 스파클링 음료

출처 : www.foodnetwork.com, www.foodbloggersofcanada.com